

玉華九曲과 玉華九曲詩

이 상 주*

- I. 머리말
- II. 李得胤과 玉華九曲
- III. 玉華九曲과 玉華九景
- IV. 玉華九曲詩
 - 1. 李苾榮과 玉華九曲詩
 - 2. 李圭益과 玉華九曲詩
- V. 맺음말

I. 머리말

玉華臺¹⁾는 산수가 수려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승지이다. 여기에는 西溪 李得胤(1553~1630)의 숨결이 곳곳에 서려있다. 그는 옥화대의 산수가 대략 중국의 武夷九曲과 같아 玉華九曲을 설정했다. 또한 서계는 지금 충북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수락동에 西溪九曲을 설정했다. 西溪는 書院의 원장인 山丈을 맡았으며 宣祖의 신임을 받아 王子師傅를 지낸 교육자였다. 또한 그는 「西溪六歌」·「玉華六歌」를 창작했으며, 音樂과 易學에 조예가 깊었던 문인학자이다. 그는 두 곳을 왕래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을 실시했으며, 문학예술을 창작했던 것이다. 이렇듯 옥화대는 이득윤의 고고한 발자취가 남아 있는 산자수명한 명승지이다.

그런가하면 일찍이 尹師皙(1494~1506)이 이곳에 유유자적한 바 있으며, 그 6대 후손이자 이득윤의 제자인 尹承任(1603~1687)도 이곳에서 학문을 탐구하며 시문생활을 했다. 이렇듯 선인들은 산수를 즐기고 그 감상한 정회를 문학으로 형상화하였다. 운치있게 산수에 노닐었던 선인들의 풍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도 문화의 세기에 문화국민으로서의 도리이리라. 만인이 자신의 스승이요, 만물은 자신의 선생이다. 남의 모습을 통해 자기 인생의 미래를 가늠해볼 줄 아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他山之石하고 溫故知新할 때 자신은 발전하는 것이다. 옥화대의 역사와 사적들을 통해 이를 체험할 수 있다.

* 문학박사, 청주대·충북대·배재대 강사

1) 玉華臺: 지금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 있는 명승지.

이득윤의 9대 후손 李苾榮(1853~1930)과 그의 아들인 李圭益(1884~1972)은 각각 玉華九曲 漢詩를 창작했다. 두 편의 옥화구곡시는 『慶州李氏世蹟補遺』²⁾ 天·地·人 3책 중에 地冊에 실려있다. 외표지에 家乘이라 筆寫하고 첫째 장 앞면에 『慶州李氏世蹟補遺』라 한 筆寫本이다. 이는 李苾榮의 손자 李鍾瓚³⁾이 소장하고 있다. 이를 필자가 발견하여 처음 학계에 소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득윤의 생애와 저술을 개괄하고 두 편의 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武夷棹歌」가 후대 문인들에게 끼친 영향과 그 수용양상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九曲文化觀光’에 일익을 주고자 한다.

II. 李得胤의 생애와 저술

西溪九曲·玉華九曲을 설정한 이득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996년 필자는 李鍾奕이 소장하고 있는 『慶州李氏先世實蹟錄』 春編을 색출했다. 여기에 「西溪先生年譜」와 「遯軒公行錄」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계에 처음 소개한 바 있다.⁴⁾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득윤과 그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먼저 西溪의 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李得胤은 初名은 德胤이며, 字는 克欽, 號는 西溪이다. 본관은 경주인데, 경주이씨는 고려말로부터 부상한 문인이 성세한 가문이다. 신라시대 인물 謁平의 17세손이 李齊賢이다. 그의 6세 후손 李公麟은 세간에 ‘八鼈’이라 알려져 있는 8명의 아들을 두었

2) 『慶州李氏先世實蹟錄』과 『慶州李氏世蹟補遺』의 편저자는 西溪의 후손 李苾榮이다.

『慶州李氏世蹟補遺』을 저본으로 하여 그 내용을 발췌해서 간행한 『慶州李氏先世實蹟錄』은 辛酉(1921년)에 간행된 上·下 2책의 목판본으로, 李公麟의 아들 李鯤으로 이어지는 인물들의 사적을 기술한 책이다. 이 책에는 두 편의 옥화구곡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 필자가 참고한 『慶州李氏先世實蹟錄』은 西溪의 후손중 李鍾奕은 소장하고 있으나 이종찬은 소장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 李苾榮(1853~1930)의 청탁으로 金濟煥이 서문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1956년에 간행한 『慶州李氏派譜』에는 鍾燁으로 되어있으나 鍾瓚으로 부름.

4) 이 「西溪先生年譜」을 통해 서계의 생애를 소상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西溪六歌」·「玉華六歌」의 創作年代가 1607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楓溪六歌」의 作者 李淨(?~1594)의 歿年이 1594년임을 확인 할 수 있어, 그의 「풍계육가」 창작 下限年代를 1594년 이전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경주이씨선세실록』에 수록된 「遯軒公行錄」의 기록을 통해 「山民六歌」의 작가인 遯軒 李弘有(1588~1671)의 國文詩歌 「感老吟」五首 및 「歸去來歌」一篇을 창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이 문헌의 기록을 통해 六歌의 創作編年을 좀 더 소상히 확인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국문시가 자료의 색출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황은 李鼈이 지은「六歌」를 내용면에서는 부정하고 형식은 계승하여 「陶山十二曲」를 창작했다. 이득윤이 「陶山十二曲」을 모방하여 「西溪六歌」·「玉華六歌」를 창작했다는 사실은 「행장」과 「묘지명」에 지적되었다. 그런데 「서계선생년보」의 기록을 통해 「西溪六歌」·「玉華六歌」 창작에 끼친 「陶山十二曲」의 영향을 재확인하게 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이리하여 「西溪六歌」·「玉華六歌」의 내용도 짐작할 수 있으며, 六歌系 時調 발전에 있어서 「陶山十二曲」의 위력의 일면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西溪先生年譜」의 기록은 六歌의 영향관계를 지적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기록인 것이다.

다. 그 막내가 鯤이며 鯤의 네째 아들이 潛이다. 잠의 맏아들이 바로 西溪 李得胤이다. 李得胤은 지금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리에서 출생하였다. 40세 때 지금의 충북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수락동에 기거했다. 여기에도 구곡을 설정하였던 바, 西溪九曲으로 불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저술을 남겼다.

- ① 『玄琴東文類記』 필사본 1책. 서울대 규장각소장. 종 37.7cm 횡 24cm. 解題 張師勛. 『한국 음악학자료총서』 15 影印. 이 저술은 음악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문헌인데, 아직 제대로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② 『西溪家藏訣』 1책 7장(後寫). 규장각 12378. 내용은 「慶州李家藏訣」과 「西溪李家藏訣」로 되어있는데, 경주이씨 가문과 서계 직계손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병란과 혼란을 예상하고 살만한 곳을 알려준 비결서이다.
- ③ 『서계집』 崇禎 四癸巳年(1833년) 6세손 靜淵이 『서계집』 4권 2책을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1권 詩와 疎, 2권 書, 3권 雜著, 序, 題跋, 箴, 銘, 祝文, 祭文, 禮說. 4권은 附錄(挽詞, 祭文, 行狀, 墓碣銘, 祝文)이다. 여기에 樂調에 대해 논한 「答鄭下叔」이란 편지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音樂史나 詩歌史에 소중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④ 『喪禮』 필사본 1책이 전해오는데, 서계의 후손으로 옥화리에 거주하는 所藏者 李龍雨의 말에 따르면 서계의 친필이라 한다. 『朱子家禮』 등 많은 전고를 인용하여 상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지금 전하는 『서계집』 「상례조」에 수록된 내용은 필사본 『喪禮』에 기술된 내용의 일부이다.⁵⁾

Ⅲ. 玉華九曲과 玉華九景

서계가 생존했던 당시의 玉華九曲과 지금의 玉華九景을 서로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 먼저 옥화구곡이다. 博大川 하류로부터 제1곡이 시작되어 상류쪽에 제9곡을 설정했다.

제1곡 萬景臺: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後坪리에 있다.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에서 동으로

5) 이득윤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李相周, 「李得胤과 西溪六歌·玉華六歌의 창작연대-「西溪年譜」를 통하여 -」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竹夫 李旻衡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태학사, 1996); 李相周, 「西溪年譜」와 「西溪六歌」·「玉華六歌」의 창작연대, 『季刊 書誌學報』 제21호, 한국서지학회, 1998, 53~73; 李相周, 「譯註 西溪先生年譜」, 『語文論叢』 제14집, 동서어문학회, 1999년, 207~228쪽 참조. 林燦澤 교수께서 「17세기 전후 윣가형식의 발전과 시조문학」, 『민족문학사연구』 6집, 민족문학사연구소, 1994.에서 西溪六歌에 대해 언급했으며, 「山民六歌」의 原文을 소개하고 평설하였다.

500미터 지점의 냇가에 숲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곳에 있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제2곡 後雲亭: 청원군 미원면 桂院里 후운정.

제3곡 漁巖: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제4곡 壺山: 청원군 미원면 월릉리. 바위 절벽이 병의 목부분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 '병목'이라 부른다. 병목 아래 농경지내에 있던 마을이 금봉이다.

제5곡 玉花臺: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제6곡 天鏡臺: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옥화대 맞은 편에 있는 절벽.

제7곡 漁潭(龍沼): 청석굴에서 2km 하류인 미원면 운암리에서 옥화리로 넘어가는 개울에 있는沼.

제7곡 引風亭: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인풍정.

제9곡 봉황대: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다음은 玉華九景이다. 1990년 5월 10일 청원군 군정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다. 座龜山에서 발원하여 미원을 거쳐 博大川 유역에 형성되어 있는 9개소의 명승지이다. 상류로부터 제1곡이 시작되어 하류쪽에 제9곡을 설정했다.

제1경 靑石窟: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국도변 냇가에 있는 천연동굴.

제2경 龍沼: 청석굴에서 2km 하류인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에서 옥화리로 넘어가는 도로 옆 개울에 있는 소.

제3경 天鏡臺: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옥화대 맞은 편에 있는 절벽.

제4경 玉華臺: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제5경 錦峰: 청원군 미원면 월릉리. 옥화리에서 1km 지점.

제6경 금관숲: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개울가에 있는 2400여평의 숲. 아람드리 떡갈나무가 유명하다. 莊子에 보이는 '無用이 大用⁶⁾'의 사상을 실천한 은사가 있었던 듯 하다.

제7경 가마소밭: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達川에 있는 깊은 물. 금관에서 2km 하류.

제8경 神仙峰: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 가마소에서 동북쪽으로 약 1km의 하류.

제9경 博大沼: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신선봉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하류.

옥화구경은 옥화대 인근에 있는 산수가 좋은 곳을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西溪의 옥화구곡은 이보다 광범한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옥화대 입구에 청원군에서 설치

6) 목수 石이 齊나라로 가다가 曲輻땅에 100아름되는 떡갈나무를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나무를 재목으로 써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石은 조목 조목 예를 들어 이 떡갈나무는 재목감으로 가치가 없는 나무라고 말했다. 소용이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장수를 누려 그렇게 큰 나무가 된 것이라 설명했다. 『莊子』「人間世」.

한 “옥화4경” ‘옥화대’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고 있다.

각<각>아 찌른듯한<찌른 듯한> 절벽의 아름다움<움>과 옥화리 벌판에
구술<술>(玉)처럼 의따로 떨어져 있다는 유래에서 옥화대라 하며 조선조의
학자인 西溪 李得胤<胤>이 세웠다는 추월정과 세심정 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안내문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맞지 않은 글자도 있을 뿐 아니라 ‘李得胤’을 ‘李得胤’이라 오기해 놓았다. < >안의 내용이 올바른 것이다. 문화유적지의 안내문은 정확한 고증과 맞춤법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일례이다.

위에서 살펴본 역사문화적 사실을 인지하고, 옥화대를 답사유람하면 훨씬 의미 있는 문화기행이 될 것이다.

IV. 玉華九曲詩

李苾榮과 李圭益이 지은 옥화구곡시의 창작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필영은 선조들의 사적을 筆寫本인 『慶州李氏世蹟補遺』 天·地·人 3책에 기술했으며, 이를 저본으로 하여 그 내용을 발췌해서 『慶州李氏先世實錄』을 辛酉年(1921년)에 上·下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두 사람의 옥화구곡시가 『慶州李氏世蹟補遺』 地冊에 실려 있는 점으로 보아, 옥화구곡시를 창작한 최하한 연대는 1921년으로 볼 수 있다.

1. 李苾榮과 玉華九曲詩

(1) 李苾榮의 생애와 저술

『慶州李氏派譜』⁷⁾를 참고로 이필영의 가계를 살펴보자. 다음은 경주이씨 시조인 謁平公으로부터 水落洞西溪公派의 가계도이다. 謁平公으로부터 23세 公麟→ 24세 8남 鯤→ 25세 4남 李潛→ 26세 李得胤→ 27세 李弘有→ 28세 3남 李萬彪→ 29세 李世白→ 30세 2남 李喜成→ 31세 李潤漢→ 32세 李慶集→ 33세 李德源→ 34세 集盛→ 35세 苾榮.

李苾榮은 1853년생으로 1930년에 졸했다. 初諱는 匡榮, 字는 敬五, 號는 西雲이다. 經史에 博通하여 여러 번 鄉試에 합격하였다. 法律學 教授, 刑曹佐郎, 繕工監主簿을 역임했다. 配는 淑人 交河盧氏인데, 父는 通政을 지낸 尙大이다. 墓所는 지금 충북 청원군 미원면 霧中洞 先塋階下 乾坐에 합장했다.

7) 『慶州李氏派譜』, 1922년. 『慶州李氏派譜』 1956년. 앞에 든 『慶州李氏世蹟補遺』 法部起草委員 文書課主事, 營繕司技手, 六品으로 승진했다고 기록돼 있다.

(2) 李苾榮의 玉華九曲詩

〈玉華九曲〉

西溪公文集中, 玉溪山水窟一舍之間, 倣武夷九曲者也.

(玉華九曲. 西溪公文集가운데, 옥계산수 30리 사이의 지역은 무이구곡을 모방한 것이다. 苾榮著.)

天藏地秘玉華開 하늘이 감춰두고 땅이 비밀로 했던 곳에 옥화구곡이 펼쳐졌는데,
 先世繁停已摠裁 선조 서계선생 노니시며 이미 구곡을 모두 정하셨네.
 九曲灘頭秋月暎 구곡의 여울물에 가을 달빛 비치니,
 漁人不敢棹歌廻 고기잡는 사람 감히 뱃노래 되돌리지 못하네.

이 시는 옥화구곡시의 序詩이다. 서시에서 이필영은 옥화구곡의 전체적인 특징을 개괄했다. 그는 옥화구곡을 일컬어 “하늘이 감춰두고 땅이 비밀로 했던 곳에 옥화구곡이 펼쳐졌다.”고 했다. 이 “天藏地秘의 땅”이라는 표현은 천지간에 매우 소중하게 감춰두고 아껴두었던 신비롭고 특이한 땅이라는 뜻이다. 산수경치가 절경을 이룬 명승지에 상투적으로 쓰이는 관용어이다. 옥화구곡은 깊숙하고 아늑하며 한적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넓고 변화한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으니, 별천지라는 뜻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어 이런 절승지에 구곡을 설정한 인물에 대해 피력했다. 다름 아닌 이필영 자신의 선조인 서계 이득윤인 것이다. 천지간에 사람이 산다. 이득윤은 이곳에 구곡을 설정하고 은거했던 것이다. 이득윤은 옥화구곡이 天藏地秘處임을 감지한 것이다. 이필영은 자신의 선조가 이런 天藏地秘處에 구곡을 설정한 사실에 대해 긍지를 갖고 그 공을 예찬하고 있다. 옥화구곡 여울머리에 가을달이 비친다. 이런 정경 속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돌아가기가 싫은 것이다. 달은 가을이라야 제대로 그윽한 운취를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이필영은 서시에서 옥화구곡이 자신의 선조 이득윤의 자취가 서린 곳이라는 곳을 강조하며, 이곳이 뱃노래를 즐길 수 있는 선경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제1곡을 보자.

一曲蒼屏萬景臺, 일곡이라 푸른 병풍 같은 만경대,
 群山削立水滌廻. 뭇산이 깎아지른 듯 서있으며 물이 감싸 도네.
 遊人覺了塵寰夢, 유람객을 속세의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는데,
 却向靈區豁眼開. 문득 신령스런 구역으로 들어가니 눈이 확 트이더라.
 萬景臺

1곡은 萬景臺이다. 그는 만경대 주변이 형세를 간단하게 압축하여 표현했다. 만경대는 푸른 병풍 같다. 병풍은 바람을 막는 도구로도 쓰이지만 주로 장식용으로 쓰인다. 그 정도로 천경대가 아름답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또한 주변에 많은 산들이 깎아지른 듯이 서있다. 그리고 물이 감싸 들고 있다.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면 명승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산수를 즐길 수 있다. 천경대의 산수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는 3,4구의 표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천경대를 靈區 즉 “신령한 구역”이라 했으니, 천경대의 경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이렇듯 표현은 간단하면서도 의미 심장하게 표현하는 言簡意深의 표현기법으로 천경대의 아름다움을 함축했다.

제2곡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자.

二曲江亭亭上雲, 이곡이라 강가의 정자, 정자위로 구름이 떠가는데,
我心怡悅欲隨君. 내 마음 기쁘고 즐거워 그대 따라 가고 싶네.
汀洲日落空延竚, 물가에 해는 졌는데 부질없이 서성이노라니,
洗耳⁸⁾徒緣事不聞. 귀 씻은 무리들과 인연된 일은 들리지 않네.

2곡은 後雲亭⁹⁾이다. 정자 위로 구름이 떠간다. 후운정에 구름(雲)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름을 걸부시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제2구의 君은 구름이다. 구름은 바람 따라 어디든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구름을 바라보면 함께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그러나 후운정이라 명명된 유래를 알면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후운정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신라시대의 대문장가 孤

8) 洗耳徒: 중국 상고시대의 隱士 許由를 가리킨다. 陽城 槐里人. 字 武仲. 堯임금이 천하를 양위한다고 하자 받지 않고 潁水에 은둔하고,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자 潁水의 물에 귀를 씻었다함. 『史記』「燕世家」. 허유가 箕山에 은둔할 때 그릇도 없이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 넣자 사람들이 표주박을 하나 갖다주었는데, 그것을 나무에 걸어두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역역해서 허유가 그것을 버렸다함. 『琴操』. 은둔하고 있는 고고한 선비가 政事에 대해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으로 쓰임.

9) 後雲亭은 지금 충북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 후운정마을에 있었다. 後雲亭이 있어서 마을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洪錫箕(1606~1680)가 孤雲臺 아래에 신라의 대문장가 孤雲 崔致遠을 흠모하여 그 뒤를 잇는다는 뜻에서 後雲亭이라 이름한 것이다. 孤雲臺는 최치원이 놀던 곳이라 전해온다.

金得臣의 「後雲亭記」에 지금의 충북 괴산군 청천면 倣丹里 倣丹山이 나온다. 倣丹山은 괴산군·보은군·청원군의 경계지점에 있는 산이다.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汝洞골 뒷산이자, 청원군 미원면 桂院里 동쪽이 된다. 百濟의 중 倣丹이 살아서 검단산이라 부르며,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이 공부하던 고운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이 고운암은 지금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 신성봉에 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001년 10월 10일 미원면 어암리 2구·인봉마을 경로당에서 김상기(1928년생)·노병철(1930년생)·김재희(1925년생)옹 등이 들려준 내용을 약술한다. 신선봉 정상 가기전에, 최치원이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절터가 남아있으며, 그 주변에 바위가 군데 군데 솟아있는데 그 사이를 돌로 채워 돌담처럼 되어 있다 한다. 또한 절에 빈대가 많이 생겨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절이 망했다고 하며, 현재 묘가 들어서 있다고 한다.

김영진 역주, 『괴산군시문집』(괴산문화원, 2000), 244~247쪽에 金得臣의 「後雲亭記」를 수록해 놓았다. 후운정이 괴산군에 속한 것인 줄 안 것 같다.

雲 崔致遠이 이곳 神仙峰에 은거했었다고 한다. 2구의 표현에서 이필영은 고운 최치원이 갔던 길을 따라 가고 싶다는 열망을 암시적으로 의탁시켰다. 후운정 일대는 산수가 아름답고 한적하여 속세를 떠나 음풍농월하며 유유자적하고 싶게 만드는 곳이다. 이는 제4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귀 씻은 무리들과 인연된 일은 들리지 않네.”라고 했다. 堯임금시대에 許由는 潁水의 물가에서 귀 씻으며 은둔했다. 이필영은 후운정의 풍광이 潁水와 동등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후운정은 은둔하고 있는 고고한 선비가 政事에 대해 듣는 것을 싫어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후운정은 속세의 명리에 집착하지 않고 초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심성을 유발하게 해주는 곳이다.

제3곡으로 가보자.

三曲寒流百尺巖, 삼곡이라 차거운 냇물이 감도는 백척의 바위,
漁郎倚棹晝眠酣. 어부는 노에 기대어 한낮에 단잠을 자네.
江兒喚起斜陽外, 아이들이 석양 멀리서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어 보니,
白鳥雙飛水盡南. 백조 한 쌍이 날아가고 물은 남쪽으로 흐르네.

3곡은 어암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위이다. 차거운 냇물이 백척의 바위가 흐른다. 백척은 매우 높다는 것을 과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어암은 시냇가에 바위 절벽이 병풍을 쳐놓은 듯이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고기잡는 사람은 고기는 안 잡고 한낮에 잠을 자고 있다. 매우 평화로워 보인다. 잠을 자다 보면 꿈도 꾸게 된다. 잠든 이후 꿈속에서 맛보는 황홀감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상상에 맡겼다. 지금 이 어부는 매우 황홀하고 감미로운 꿈을 꾸고 있다. “단잠”이라는 표현이 그런 정황을 암시하고 있다. 환상적인 꿈에 젖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고 있는 어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이들의 노래 소리에 단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결국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상적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니다. 잠에서 깨어났어도 이어진다. 하얀 백조 한 쌍이 정겹게 날아가고 있다. 얼마나 다정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가? 이렇듯 어암은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평화로운 정경을 실감케 해주는 곳이다.

제4곡을 살펴보자.

四曲 劔峰復壺山, 사곡이라 劔峰을 지나 다시 壺山인데,
誰識眞源在此間. 누가 이곳에 참다운 근원이 있는 줄 알까나?
幸被東風能假我, 다행이 동풍을 나에게 빌려주어,
插花題柳不曾閒. 꽃을 꽃고 버들개지 노래하느라 일찍이 겨를이 없네.

제4곡은 壺山이다. 壺山은 지금 우리말로 ‘병목’이라 부른다. 동쪽기슭에 금봉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옥화9경 중 제5경에 금봉이 들어있다. 호산은 물길이 태극문양의 중앙분할선형태(영문자로 S자)처럼 감돌아 간다. 그런데 그 굽이가 심하여 그리스문자로 표현하자면 ‘Q’자 가까운 모양을 이룬 지형이다. ‘Q’자를 거꾸로 놓으면 완전한 병모양이다. 물론 이런 물굽이가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은 아니다. 호산은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다. 호산 정상부는 가장 좁은 곳은 폭이 70cm 정도이며, 최하단부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은 5m 정도이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절벽이 수백 m 이어지고 양쪽으로 푸른 물이 흘러가고 있어 내려다보면 아찔하다. 산 정상부라 바람이 세게 불어 시원한데, 절벽아래 흐르는 파란 물을 내려다보면 저절로 등골이 오싹해져 한 여름에도 땀이 쑥 들어간다.

이런 호산의 실상을 표현한 이필영의 시를 살펴보자. 제2구에서 호산의 절경을 ‘참다운 근원(眞源)’이라는 말로 압축했다. 글자의 뜻 그대로 ‘참다운 근원’이라는 뜻으로만 썼을까? 그러나 이런 뜻으로만 해석한다면, 壺山이 산수가 뛰어나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기엔 좀 미흡하다. ‘진짜 무릉도원’이라는 뜻을 축약하여 쓴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인봉과 호산 일대의 산수가 절경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平仄을 맞추어야 하고 제한된 글자로 시를 지어야 하는 시 작법상 ‘진짜 武陵桃源’이란 용어를 그대로 다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 壺山一帶는 무릉도원이라 할만큼 산수 형상이 좀 특이한 것이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오염되지 않은 곳이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꽃들의 미소를 볼 수 있다. 제4구에 “꽃을 꽃고 버들개지 노래하느라 일찍이 겨를이 없네.” 여기에 제시한 꽃은 도연명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복숭아꽃을 염두한 표현이리라. 버드나무는 陶淵明의 「五柳先生傳」에 보이는 버드나무일 것이다. 시인은 호산 일대가 복숭아꽃이 떠가는 武陵桃源이라고 환상에 젖어본 것 같다.

호산으로 가는 제1노선은 다음과 같다. 금관초등학교 정문에서 보은방면으로 조금 가면 금관교가 나온다. 여기서 왼쪽으로 개울가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 바로 금관절경이라는 음식점이 나온다. 개울가 뚝방에 초가집 두 채를 지어놓았는데 개울 건너 옷청벽과 잘 조화를 이룬다. 이 개울가를 따라 걸어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높은 바위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쳤다. 이른바 장구목이라는 산이다. 농악기 장구의 목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절벽아래 개울은 바닥이 바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개울 가운데 바위가 울퉁불퉁 이어져 개울을 가로지르고 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200m 정도 계속되어 장관을 이룬다. 늦가을에 가면 개울가 왼쪽으로 하얀꽃 핀 갈대와 붉게 물든 여귀풀이 초록의 물빛과 어루어져 절경을 이룬다. 장구목 가기 전에 개울을 건너 금봉쪽을 향해서 개울가를 따라 걸으면 자갈이 부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개울가에서 호산을 바라보면 그 절벽과 절벽 바위 틈에 나있는 초목들이 장관을

연출한다. 한참 개울가를 따라 걸어가면 평상목에서 개울가로 이어지는 건널목이 나온다. 여기서 금봉마을이 있던 곳으로 건너야 한다. 두 곳 모두 다리가 설치되지 않아 신을 벗고 건너야 한다. 여기서 호산잠수교까지 수백 m의 황토길이 전개된다. 이 길을 따라 옥화대방면으로 한참 가다가 금봉마을이 있던 자리에서 호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된다. 여기서 다시 하산하여 잠수교를 건너 옥화대방면으로 오면 된다.

이길이 약간 험은 들지만 산수풍광미를 만끽할 수 있고 걷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이 일대의 산수풍광은 이필영의 표현 그대로 신선경인 '眞源'이다. 심산유곡을 따라 울퉁불퉁한 흙길을 호젓하게 걸을 수 있어 도보산책로로 제격이다. 금관교에서 호산잠수교까지는 약 2km 정도 된다. 나는 이 노선을 이득윤이 육가를 창작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六歌를 부르는 길'이라 명명하고 싶다. 아울러 청원군 미원면 어암1구 쇠바위에서 어암2구 인봉마을에 이르는 약 2km의 시냇가 오솔길을 '옥화구곡시를 읊조리는 길'로 명명해 본다. 이 두 곳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으나, 농사용 차량 이외는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다. 또한 흙길이거나 자갈길이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호젓하게 산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책로로 적격이며 또는 극기훈련을 위한 달리기 장소로도 매우 적합하다. 제2노선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용리를 거쳐 호산 정상부로 가는 기슭까지 갈 수 있다. 용이하기는 해도 제1노선만큼 산수풍광미를 즐길 수 없다.

이제 이득윤의 春風堂과 秋月亭이 있는 제5곡으로 왔다.

五曲荒臺是玉華, 오곡이라 황량한 누대 옥화대,
春風秋月道人家. 春風堂과 秋月亭은 도인이 살던 집.
瞻前忽後誰能罷, 누군들 앞쪽만 바라보다 뒤를 소홀히 하지 않으리?
山上仙靈認不遐. 산위의 仙靈이 멀지 않음을 알겠네.

玉華臺 朱子精舍在五曲. 故秋月亭亦在此.

(玉華臺 주자의 精舍가 오곡에 있었다. 그래서 추월정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5곡은 옥화대이다. 이필영은 玉華臺를 荒臺로 표현했다. 이는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다. 자신의 회사를 겸손하게 표현하여 弊社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玉華臺는 옥화구곡의 핵심이다. 이곳에서 이득윤이 학문을 연구하며 후진을 교육하고 문학을 창작했던 곳이다. 이득윤의 얼이 깃든 곳이며 그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다. 春風과 秋月은 이득윤이 건립한 春風堂과 秋月軒이다. 지금 秋月亭이라 이름한 건물을 옥화대 언덕 위에 지었다. 이득윤의 정신문화의 산실이었다. 이득윤은 왜 하필이면 春風堂과 秋月軒이라 이름했을까? 깊은 뜻이 담겨있다. 春風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덕화를 베푼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쓴 것이다. 그야말로 강의실 내지 학교의 이름을 문학적으로 詩的으로 붙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풍류요, 지성적 멋이다. 그 연원을 살펴보자. 먼저 이득윤의 후손인 李慶武¹⁰⁾가 쓴 「春風堂(歲寒亭而堂曰春風軒曰秋月)重修記」를 보면 春風堂과 秋月軒이라 명명한 내력과 유래를 밝혀놓고 있다. 살펴보기로 하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며 말하기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옥화대에 정자를 짓고 堂에 春風이라 편액하고, 軒에 秋月이라 했으니 두 가지의 청아함을 게시한 아름다운 이름이니, 감탄하여 말하기를 “사계절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즉 전체를 구비한 승경이 모두 그 가운데 있으니, 이에 春秋 두 글자를 택한 뜻이라 했다. 내가 宋나라 明道(程顥의 字 - 인용자 주) 程顥선생의 和風의 氣像을 標題로 삼고, 宋나라 延平(李侗의 字 - 인용자 주) 李侗先生的 秋月の 氣像을 모범으로 삼았다. 이런 이름을 설정한 이유는 아래로부터 위에 도달한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¹¹⁾

程顥와 李侗은 모두 고결한 인품과 높은 학문을 성취한 道學者들이다. 春風堂의 유래와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宋史』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은 정호에 대한 인물 평이며 뒤는 李侗에 대한 평이다.

정호는 자질과 성품이 남들보다 뛰어나며, 수양을 잘하고 도가 있어 온화하고 순수한 기질이 얼굴과 등에 넘쳐 門人과 交友들이 그를 數十年 따라도 또한 화내고 어기는 얼굴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¹²⁾

말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머금으면 온화하게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서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하게 하여, 춘풍이 만물을 발하게 하는 것과 같은데 이르나, 대개 또한 그 소이언을 알지 못한다.¹³⁾

위 글에서 말했듯이 춘풍은 봄바람이 만물에 입게 하듯이 인류에게 교육을 입게 하는 것을 비유한다. 이렇듯 이득윤은 춘풍이 주는 意象과 같은 감화와 덕화를 베풀겠다는 신념을 堂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사례는 다음에서도 『說苑』¹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 10) 『世蹟補遺』(地)冊. 「春風堂(歲寒亭而堂曰春風軒曰秋月)重修記」 不肖孫 慶茂. 1922년에 간행한 『경주이씨 파보』를 통해 그의 가계를 정리해본다. 李得胤→ 제2남 弘復→ 장남 萬廷→ 장남 寅白→ 장남 東夔→ 장남 元漢→ 제3남 慶武. 丁巳生 壬申졸. 墓는 安心谷 子坐 標石이 있다. 학행이 있으며 遺稿와 門人錄이 있다.
- 11) 李慶武, 「春風堂(歲寒亭而堂曰春風軒曰秋月)重修記」. 登臨高昞曰左之右之宜之有之, 乃起亭於臺上扁堂曰春風軒曰秋月, 揭雙清之美號, 歎曰 矚一目於四時, 則全體具備之景, 摠在其中, 於是擇春秋二字之義云. 吾於宋得明道先生和風氣像以之爲標題, 又得延平先生秋月氣像, 以之爲模範, 其所以設此名者, 取其自下達上之義耳.
- 12) 『宋史』 卷427 列傳 186 道學 一 程顥. 顥資性過人, 充養有道, 和粹之氣, 盎於面背, 門人交友從之數十年, 亦未嘗見其忿厲之容.
- 13) 『宋史』 「李侗傳」. 至於不言而飲人以和, 與人並立而使人化, 如春風發物, 蓋亦莫知其所以然也.

다음은 秋月軒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자. 『宋史』의 기록이다.

沙縣의 鄧迪가 일찍이 朱松에게 일컬어 말하기를 “愿中은 얼음이 든 병과 가을 달과 같아 맑고 투명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들이 미칠 수 없다.” 하니, 朱松이 그것을 일컬어 知見이 있는 말이라 했다.¹⁴⁾

이렇듯 이득운은 가을달이 풍기는 意象과 같은 인품을 도야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軒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 옥화대의 산수풍광은 어떠한가? 제3구에서 앞쪽에 치중하여 살펴보다 보면 뒤쪽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했다. 앞쪽이 너무 좋아 거기에 몰입하여 도취되다 보면 아예 뒤쪽을 마음 쓰지 못하고 망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 승경을 상상해 보라. 어떠한 곳이라 강조한 것인가? 앞쪽의 경치도 좋지만 뒤쪽은 더욱 좋다는 말이다. 뒤쪽에 대한 설명을 보자. 뒤쪽엔 仙靈이 있다는 말로 일갈했다. 선령이 있다는 말은 신선이 사는 곳이다. 우리가 흔히 산수경치가 좋으면 의례 神仙境이라 표현한다. 옥화대의 수려한 산수에 대해서는 그 이상 군더기의 말이 필요없다. 이렇듯 옥화대는 산수의 아름다움이 前後가 相應한 명승지인 것이다.

제6곡을 보기로 하자.

六曲紫霞¹⁶⁾像萬千, 옥곡이라 紫霞峰의 형상은 천태만상,
巖花堤樹早晨天. 바위에 꽃 제방의 나무 새벽하늘에 돋보이네.
有靈鶴頂安心谷, 有靈里·鶴頂里·安心谷,
清景森羅活畫邊. 삼라만상의 맑은 풍경 그림 가에 살아있네.
天景臺

6곡은 천경대이다. 천경대 맞은 편에 있는 좀 높은 산이 紫霞峰이다. 서쪽에 있다. 그래서 가끔은 붉그레한 노을이 산마루에 걸려있으리라. 그래서 紫霞峰이다. 그런데 이 봉우리는 천태만상의 변화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을의 색깔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이다. 또 저녁 때 되면 수증기가 응결되어 안개로 변할 때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이래서 자하봉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천경대 바위 위에 핀 꽃과 나무들이 새벽에 더욱 청초하게 돋보인다.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마을을 보자. 有靈里¹⁷⁾·鶴頂¹⁸⁾·安心谷¹⁹⁾이다. 마을 이름도 신선과 관련 있는 이름이다. 有靈리는 이름 그대로 神靈

14) 春風風人: 사람이 남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 남에게 교육 또는 도움을 베푸는 것. 『說苑』 「貴德」. 管仲上車曰 吾不能以春風風人, 夏雨雨人, 吾窮必矣.

15) 『宋史』 卷428 列傳 187 道學 二李 侗 沙縣 鄧迪嘗謂松曰 愿中如冰壺秋月, 瑩徹無痕 非吾曹所及, 松以謂知言. 松은 朱松으로 李侗과 同門友. 愿中은 李侗의 字.

16) 紫霞峰: 天景臺 앞산.

17) 有靈: 有靈里.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괴머리골 동남쪽에 있는 들 마을.

18) 鶴頂: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오소불午沼 = 龍沼) 동남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학의 목처럼 생겼음.

19) 安心谷: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안골.

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鶴頂리는 마을의 형상이 학의 목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鶴은 신선의 化身이라는 전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安心谷은 마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을이다. 이곳에 이득윤이 1592년 東西齋를 창건한 바 있다.²⁰⁾

제4구에 “삼라만상의 절경이 그림가에 살아있다.”란 말로 요약했다. 흔히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가면, 그림 같다고 한다. 이 말은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천경대의 아름다운 승경을 그림가에 살아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니, 천경대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제7곡을 보자.

七曲深深鰲背潭, 칠곡이라 깊고 깊은 鰲背潭,
 布帆春雨滴靑嵐, 삼배돛에 나리는 봄비 물방울 파름스름한 아지랑이어라.
 源頭覓路頻回首, 물의 근원을 찾으려 머리를 돌려보니,
 郵樣扶疎一兩三, 촌동네 두 셋 집 띄어띄엄 붙어있네.

7곡은 鰲潭²¹⁾이다. 오배담 이라고도 한다. 오담은 단순히 개울물이 흐르다 평평하게 고여있는 곳이 아니다. 鰲背潭을 상상하게 해주는 곳이다. 자라는 신선과 관련이 있다. 鰲背는 전설에 큰 자라가 등에 仙山을 지고 다닌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 오면 신선경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요약해 표현한 것이다. 이 신령한 못에 삼베로 만든 돛단배가 떠있고 봄비가 나린다. 이내 푸르스름한 아지랑이가 되어 피어오른다. 이렇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물의 근원을 찾으려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촌마을 몇 집이다. 마을의 집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자리잡고 있다. 인적이 드물다는 말이다. 인적이 드물면 한가로이 자연의 정취를 음미하기가 좋다. 실제 오담에서 상류쪽을 바라보면 탁 트이고 지금도 인가가 많지 않다.

제8곡으로 가본다.

八曲豁然引風亭, 팔곡이라 탁트인 引風亭,
 望裏橫橋石色靑, 바라보니 가로놓인 다리 돌 색깔 청색이네.
 飄灑胸襟渾忘返, 시원한 바람 가슴을 후련하게 하여 돌아가고 싶지 않고,
 渚禽林鳥亂人聽, 물새 산새 지저귀는 소리 귓전에 요란하네.
 引風亭

8곡은 引風亭²²⁾이다. 전에 이곳이 놓였던 다리가 돌다리였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

20) 左龜山: 지금은 坐龜山으로 표기함. 지금 충북 청원군 미원면 花源里 龍谷里 절경에 있는 산.

21) 鰲潭: 현재 龍沼 옥화동 서남쪽 개울의 소. 바위 절벽 아래 물이 돌아 흐르는 곳으로, 물이 고여있는 듯 함. 가뭄이 심할 때 군수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를 맞고 갈 정도로 감응이 뛰어나다고, 서계의 후손 이용우씨가 전했다. 2001년 5월에도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22) 인풍정: 지금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인풍정.

다. 지금 이곳에 놓은 다리를 靑石橋라 부른다. 당시에는 돌로 놓은 징검다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방은 돌 색깔이 약간 검푸른 색을 띄고 있다.

위 시에서 인풍정 시내에 놓인 다리돌 색깔이 청색이라 했다. 청색이 주는 색채감이 산뜻하고 시원하다. 게다가 서늘한 바람이 분다. 그래서 돌아가기 싫다. 물새 산새가 지저귐다. 인적이 드물다보니 마음놓고 지저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울어대는 것이다. 자연 친화적 승경로서의 인풍정의 면모를 잘 표현했다.

청석교 약간 하류 개울가에 천연석굴이 있는데 靑石窟이라 부른다. 이에 대해 참고삼아 부기해 둔다. 靑石窟은 1990년 5월 10일 청원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옥화구경을 선정했는데, 제1경으로 설정되었다. 청원군 미원면 소재지에서 보은방면으로 약 5km 지점 왼쪽 냇가, 즉 후운정 상류 약 1km지점에 있는 자연석굴이다. 굴안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으며, 구석기시대 유물로 찌개와 불룩한 굽개가 발굴되었다. 전체적으로 먼저 간접떼기의 모룻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후기 구석기시대의 연모제작용이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제9곡시를 살펴보자.

九曲天畔鳳凰臺, 구곡이라 하늘가에 솟은 봉황대,
次第淸光眼際來. 次第星 맑은 빛 눈앞에 비쳐드네.
遊子從今誇有限, 유람객 이로부터 눈있음을 자랑할 수 있으니,
山東²³⁾畫幅正恢恢. 산동의 화폭이 정말 넓디 넓네.
鳳凰臺²⁴⁾ 自一曲滿景臺至此 爲一畝.
(봉황대, 제1곡 만경대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一畝²⁵⁾가 된다.)

9곡은 봉황대이다. 봉황이 깃든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봉황은 전설속 상상속의 靈鳥이다. 그 봉황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열망이 서린 봉우리이기도 하다. 산새가 수려하고 신묘한 면을 지니고 있는 산으로 간주하여 붙인 이름이다. 次第星의 맑은 빛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유람객의 눈은 즐겁다. 이필영은 봉황대를 포함한 옥화구곡의 승경을 넓디넓은 화폭으로 비유했다. 그림은 본래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 옥화구곡은 조물주가 그려낸 넓디넓은 화폭이다. 이필영은 지금 넓디넓은 화폭가운데 서있다. 그림밖에 있으면서 그림 속에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다. 행복한 환상이다. 작자는 그림 밖에서 글을 통해 그림 속으로 들어가 그림 같은 봉황대를 그려낸 것이다.

23) 山東: 상당산성 동쪽 50리를 산동이라 함.

24) 鳳凰臺: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에 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 상당히 높는데 그 정상부가 봉황대이다. 북쪽으로 청원군 미원면과 인접해 있으며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와는 가까운 거리이다.

25) 一畝: 삼 십리.

2. 李圭益과 玉華九曲詩

(1) 李圭益의 생애

李圭益은 이필영의 장남이다. 1884년생으로 1972년 88세에 졸했다. 字는 舜佐요. 號는 晦堂이다. 書史를 대략 涉獵했다. 弱冠에 처음 벼슬로 忠勳府 忠義를 지내고, 中樞院議官 등을 역임했다. 配는 淑人 韓山李氏로 父는 準老이다. 系配는 驪興閔氏로 父는 益鎬이다. 묘소는 지금 충북 청원군 미원면 수락동(冶洞)에 있다.²⁶⁾

(2) 李圭益의 玉華九曲詩

먼저 옥화구곡의 序詩를 살펴보자.

玉華九曲 圭益著

玉華靈境鏡中開, 옥화의 신령한 경치 거울 속에 펼쳐지고,
臺下山川曲曲裁. 옥화대아래 산천 구비구비 마름질했네.
百世先生留杖屨 백대토록 선생의 유적이 남아있으며,
後人頌德詠歌廻. 후인이 송덕하는 노래 나도네.

서시에서 작자는 옥화구곡의 승경을 '靈境'이라 단언했다. 글자 그대로 신령스런 경치라는 말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조물주의 영험한 영력을 받아 이루어진 경치라는 뜻인 것이다. 이런 絶勝이 거울 속에 펼쳐졌다고, 작자는 예찬한다. 이렇듯 작자는 옥화구곡의 자연경관이 絶境이라는 점을 간단명료하면서도 극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물론 이는 강조법이자 과장법이다. 명승지를 예찬하는 상투적인 표현인 것이다. 사실 옥화대의 경관은 아름답다. 그런데 작자의 눈에는 그냥 영경이 아니다. '거울속에 펼쳐진 靈境',이다. 작자의 시적 표현이 절묘하다. 작자는 옥화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시적 표현을 통해 극찬했다. 이것이 시적 묘미이자 시의 효과요, 문학적 표현미학의 아름다움이다.

옥화구곡의 전체적 위치에 대한 작자의 시각을 보자. 제5곡인 옥화대를 중심으로 구비구비 잘 마름질되어 있다. 마름질이란 '옷을 재단한다' 할 때 그 의미다. 옷을 재단하듯이, 옥화구곡은 적합하게 제자리 잘 잡았다는 말이다. 이러한 명승지에 백대토록 오랜 세월동안 西溪 李得胤의 유적이 남아있다. 후인이 그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가 나뉜다. 西溪는 작자의 선조이다. 후인은 단순히 이득윤의 後孫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후대사람들이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작자는 옥화대구곡 서시에서 옥화대가 '거울속에 靈境'으로, 서계의 유적이

26) 李圭益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의 족보를 참고했다. 『慶州李氏派譜』, 1956년. 『慶州李氏派譜』, 1922년. 『慶州李氏派譜』, 『慶州李氏世蹟補遺』(地)책에 蔭仕로 忠義·參奉·中樞院議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남아있는 곳이며 그의 덕이 예찬될 만한 유서 깊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제1곡이다.

一曲川邊有釣臺, 일곡이라 시냇가 낚시터엔,
蘆花明月鶴飛廻. 갈대꽃 편 밝은 달밤에 학이 빙빙 나누나.
玉簫聲斷仙人去, 옥피리 소리 끊어져 선인이 떠나가니,
萬景沈沈鬱未開. 만경대는 어두므레 가려져 열리지 않았네.
萬景臺

제1곡은 만경대이다. 시냇가에 낚시터가 있다. 그 낚시터 주변엔 갈대가 피어있다. 달빛이 은은한 밤에 학이 그 위를 비잉 빙 맴돈다. 그야말로 환몽적이다. 갈대는 가을이면 하이얀 꽃이 핀다. 그 꽃이 바람에 하늘하늘한다. 거기다 뽀얀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달밤에 白鶴이 하늘에 맴돌고 있다. 예로부터 학을 신선의 화신으로 여겼다.²⁷⁾ 결국 작자는 만경대가 신선이 놀만 한 곳으로 예찬한 것이다. 이곳에서 신선이 옥피리를 불었었다. 그러한 이곳에 지금 옥피리 소리는 끊어지고 신선도 떠나갔다. 그래서 지금 만경대는 안개같은 것에 감싸이고 가려져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작자는 이렇듯 신비로움을 간직한 명승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신선경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는 신선의 경지에 도달한 선지자인 것이다. 그래서 신선경인 만경대는 작자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결국 작자가 그곳의 매력을 알고 작자가 인간 신선으로서 그 승경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만경대 시냇가에 가을이면 갈대꽃이 하이얗게 만발하여 학과 옥피리를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제2곡이다.

二曲依微楚女雲, 이곡이라 비유할 수 있네, 무산의 선녀가 구름되어,
朝朝暮暮長隨君. 아침 저녁 오래도록 그대 따라 갔던 일이랑.
巖然孤臥衣裳冷, 외롭게 누우니 옷이 차가워지는데,
桂苑²⁸⁾仙風有執聞. 계원의 선풍 누가 들려줄 수 있겠나?
後雲亭

제2곡은 후운정이다. 지금 충북 청원군 桂院里 후운정마을이 있다. 후운정이 있었던

27) 華表: 「搜神後記」. 丁令威는 본래 漢 遼東人 靈虛山에서 道를 배워 鶴이 되어 요동에 돌아옴. 성문의 華表柱에 모였는데, 이 때 소년이 활로 쏘려하자, 학이 날며 허공을 배회하며 말하기를 “새가 있으니, 정영 위라. 집을 떠난지 천년만에 지금 돌아오니 성곽은 옛과 같은데 人民은 아니다. 어찌 仙家를 루루히 배우지 않나?” 하고는, 드디어 하늘로 높이 날아갔다.

28) 桂苑: 文壇. 桂木. 상록교목. 桂木을 가꾸어 만든 苑.

곳이라 마을의 이름이 후운정이 되었다. 본래 청주군 山內二上面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內基里·向雲里·桂塘里·斗院里를 병합하여 桂塘과 斗院의 이름을 따서 桂院里이라 했다. 후운정 마을은 신선봉기슭 어암 개울가에 자리잡고 있다. 신선봉은 1990년 5월 10일 청원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玉華九景 중의 하나이다. 신선봉은 후운정 동쪽에 있는 산이다.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신라말기 孤雲 崔致遠선생이 은거했던 곳으로 전해진다.²⁹⁾

後雲이란 말은 孤雲 崔致遠의 뒤를 잇는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조선조에 洪錫箕는 이곳에 정자를 짓고 後雲亭이라 했으며, 金得臣의 「後雲亭記」가 있다. 지금 漁巖里 仞峯 마을 앞 시내를 건너면 바로 마을 입구 오른쪽 얇은 언덕에 후운정 터만 남아있다. 洪錫箕는 최치원의 고고한 기품과 문학적 성취, 명리를 추월하여 속세를 벗어나 은둔했던 삶의 자세를 동경하고 그 뜻을 모방했던 것이다. 아마도 지각있는 선비들의 이상적 동경의 대상중의 하나가 최치원이었을 것이다.

‘桂院의 仙風’은 최치원을 염두한 표현이다. 지금의 후운정에서 최치원이 은거했다는 전설을 의식한 詩的 표현이다. 『桂苑筆耕集』은 최치원의 문집이다. 작자 역시 최치원의 문장을 선망하고 흠모하고 있는 것이다. 최치원과 관련된 전설을 결부시켜 후운정의 절경을 부각한 것이다.

작자는 후운정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제1구에 구름에 얽힌 재미있고 낭만적인 고사를 끌어들인다. 바로 중국 巫山の 선녀이야기이다. 무산은 열두 봉우리로 되어 있다. 楚 襄王이 高塘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찾아온 여인과 하룻밤 동침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 그 여인이 떠나면서 “저는 巫山에 사는 선녀인데 매일 아침이면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비가 됩니다.” 하였다. 이 고사는 남녀의 性愛的 쾌락을 즐기는 것을 뜻한다. 작자는 신선봉 밑에 있는 후운정의 절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비로운 전설과 낭만적인 고사를 동원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시적 표현기교도 인정해줄 만하다. 작자는 結句에서 ‘桂院의 仙風 들려줄 사람 누구인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그런 인물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은 선풍을 알고 즐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내포시킨 것이리라.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에 건너가 18세 賓貢科에 급제했다. 高駘의 막하에서 관직을 하고 있을 때, 黃巢의 반란이 일어나자 「討黃巢檄文」을 보내 그를 굴복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귀국하여 헌강왕과 정강왕을 섬겨 翰林學士를 지냈으며, 다시 茂林(지금 전라북도 茂城 즉 泰仁)太守로 나갔다. 최치원이 은둔했었다는 전설은 지금 후운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관련된 설화를 덧붙여 두고자 한다. 진성여왕때 이 세태를 개탄하며 경상북도 가야산 해인사에서 은둔하다가 아예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곳 바위에 시 한 수를 남기고 말이다. 그가 지었다는 시 한 수가 바위에 새겨져 전한다. 참고로 곁들여

29) 『청원군지명지』(1997), 83~84쪽 참조.

둔다.

「題伽倻山 讀書堂」

狂奔疊石吼重巖, 첩첩의 암석사이 내달리어 깊은 산골짜기 울리니,
人語難分咫尺間. 지척에서 하는 사람의 말소리 분간하기 어렵네.
常恐是非聲到耳,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다다를까 두려워,
故教流水盡籠山. 일부러 물을 흘려 산을 모두 감싸게 했네.

독서당은 지금 해인사입구에 자리한 籠山亭이다. 실제 그가 새겨놓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조선조 송시열의 초서라고도 한다. 후대에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새겨놓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만큼 그에 대한 숭모의 정이 돈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한 단서이다.

다음은 제3곡이다.

三曲砢碎白石巖, 삼곡이라 물결 부딪치는 하얀 바위,
枕頭胡蝶夢³⁰⁾恬酣. 베개 머리에 胡蝶夢으로 달게 빠져들었네.
五更星隕無人見, 오경되자 별지니 사람을 볼 수 없고,
漁笛寥寥月巷南. 고기잡는 피리소리 적막한데 달은 남쪽에 떠있네.
漁岩

제3곡은 어암이다. 앉아서 고기잡이 할 수 있는 하얀 바위다. 바위에 물결이 찰랑 밀려온다. 옛날에는 물론 자연오염이니 수질 오염이니 하는 말이 없기도 했겠거니와, 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해도 오늘날과 같이 오염이 심하기야 했으랴. 실제 하얗기 때문에 하얀바위라 표현했겠지만 하얀색이 주는 색채적 함의는 청결하고 순수하다는 느낌을 준다. 베개 머리에 호접몽이 감미롭다고 했다. 시각이 五更이 됐다. 여느 때 같으면 꿈나라로 갈 시간이다. 별 마저 지고 마니 인적이 드물다. 무인지경의 적막한 야밤에 고기 잡는다. 피리소리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달은 남쪽에 있다. 조금 후면 서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미 한 밤이 지나 새벽으로 향하고 있는 시각인 것이다.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고기잡이하는 것이다. 새벽으로 가는 시각에 자연에 심취하여 고기잡이의 즐거움에 몰입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곳은 고기잡이하며 자연미를 탐닉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인 것이다. 청정한 자연에서 여유있게 고기잡는 쾌감을 누릴 수 있는 적

30) 꿈속에서 자신이 나비로 변하는 것. 후대에 幻夢을 가리키게 됨. 『莊子』「齊物論」. 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 則籟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蝶則必有分矣. 此之謂物化.

지가 어암이다.

다음은 제4곡이다.

四曲逶迤數 初山, 사곡이라 연이어 솟아있는 수 길 되는 산,
 烟霞出沒翠微間. 안개노을이 푸르름 사이로 피어올랐다 걸혔다 하네.
 淸風送酒林亭晚, 맑은 바람 쐬며 술 마시니 숲속 정자에 해는 저물어지는데,
 始覺壺中日月閑. 술 마시다 보니 세월이 한가롭다는 걸 비로소 깨닫겠네.
 壺山

4곡은 호산이다. 지금 그곳 주민들은 ‘병목’ 또는 ‘병목안’이라 부른다. 자연이 이런 지형을 지명화한 것이다. 지형이 흔히 술을 담은 병의 목처럼 잘록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물길이 태극문양의 중앙분할선형태(영문자로 S자)처럼 흐르는 곳이다. 그런데 그 굽이가 심하여 그리스 문자로 표현하자면 ‘Ω’자 가까운 모양을 이룬 지형이다. 물흐름의 곡선이 시각적으로 유연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이 물이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안고 흐르기도 하고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 안겨 흐르기도 한다. 이런 오묘한 경관을 조물주는 조형해 놓은 것이다. 물이 흐르다보니 자연 안개가 피어오르는 날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수면 위로 안개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것이다. 이런 경치 속에 맑은 바람 쐬이며 술잔을 기울인다. 절로 술맛이 돌아나는 것은 지당한 것이다. 맛에 취해 마시다보니 해 저무는 줄도 모른다. 호산에서의 술 마시는 날은 세월을 잊을 수 있는 날이다. 작자는 壺山이라는 지명에 걸맞게 술을 끌어왔다. ‘壺山’ ‘병목안’ ‘술병안’이다. 작자는 지금 ‘병목안’에 와 있다. 술병안에 들어가서 술이 취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작자는 지명과 술을 결부하여 詩的 묘미를 기묘하게 살려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취상태에서 술주정하는 것 보다 더 추잡하고 혼미한 일면이 있다. 이곳 ‘壺山’ 즉 ‘병목안’에서 수양하면 그 추태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 같다. 陶淵明은 술을 ‘忘憂物’이라 하기도 했다. 막연하게 시름을 잊으려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시름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면서 술을 마셔야 한다. 개선의 힘과 창조의 힘을 되찾기 위한 술자리가 되어야 한다. 막연히 체력을 소모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안 된다. 술 마시는 얘기가 나와서 술에 관한 나의 지론을 하나를 적는다. ‘차 한잔에 사랑과 술 한잔에 우정을 타 마시며 자신의 미래를 논하라.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논하라.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논하라.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하라.’ 이것이 올바르게 술 마시는 자세요, 운치를 아는 문화인의 酒道이자, 낭만을 아는 지성인의 풍류다.

제5곡을 보자.

五曲亭亭秋月華, 오곡이라 은은히 가을달은 빛나고,

數椽依舊碧山家. 몇 개의 석가래 푸른 산의 루대에 의구하네.
 滿臺松桂春無盡. 옥화대 주변 뿅뿅한 소나무 계수나무 봄에도 한없이 푸르니,
 先澤³¹⁾流傳百世遐. 선조의 수택이 오랜 세월 전해지네.
 玉華臺

5곡은 옥화대이다. 玉華臺라 명명한 내력은 다음을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玉華山은 중국 陝西省宜君縣 남쪽에 있다. 그 남쪽에 野火谷이 있고 야화곡 서쪽에 鳳凰谷이 있다. 唐太宗이 玉華宮을 건설했는데, 이로서 산의 이름이 되었다.³²⁾ 지금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가 있으며 옥하구곡 제9곡에 봉황대를 설정해 놓고 있다.

玉華臺는 서계 이득운이 春風亭과 秋月軒을 세우고 강학을 하며 시문을 창작했던 장소이다. 朱子가 武夷九曲 제5곡에 武夷精舍를 세운 것을 모방한 것이다. 물론 주자의 학문생활도 모방한 것이다. 역기서 秋月은 단순히 하늘에 떠있는 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서계가 지었던 추월현도 염두하고 그렇게 이끌어 온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달은 가을에 보아야 운치가 제 맛이 난다. 은가루 뿌려놓은 듯한 은하수 떠가는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에 맑고 시원한 바람이 소슬히 부는 밤에 등그렇고 뽀얀 달을 보라. 淸風明月이다. 이를 보면 光風霽月을 연상케 한다.

다음은 『宋史』 「周敦頤傳」에 黃庭堅은 주돈이의 품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가슴 속과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하기가, 비운 뒤에 부는 바람과 비 개인 뒤에 떠오르는 달과 같다.(胸懷灑落, 如光風霽月)” 마음이 상쾌하고 깨끗함을 비유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보면 사람의 마음도 상쾌해지고 가슴도 후련해지게 된다. 춘풍정이 푸른 산(碧山)에 둘러싸여 있다. 碧山하면 연상되는 시구가 있다. 陶淵命의 「桃花源記」의 내용을 詩化한 李白의 「山中答俗人」에 나오는 “그대에게 묻노니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느냐? 웃으며 대답은 하지 않지만 마음은 절로 편안하네. 복숭아꽃이 물에 멀리 흘러가니, 별천지가 있어 인간세상이 아니로다(問余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이다. 작자는 이런 詩想과 詩心을 염두했을 것이다. 옥화대의 산수미가 桃花源에 비견될 수 있다고 자부한 것이다.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옥화대 하류로 내려가면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 입구가 나온다. 이곳이 武陵里와 桃源里가 있다. 武陵과 桃源은 도연명 이후 신선경을 대변하는 상투어가 됐다.

이곳 옥화대엔 고고한 학자였던 이득운의 덕택이 서려있다. 이득운은 이 곳에서 교육과 학문을 했으며, 「西溪六歌」와 「玉華六歌」를 창작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西溪六歌」와 「玉華六歌」의 실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육가창작은 경주 이씨가문의 전통처럼 되어 그의 맏아들 李弘有도 「山民六歌」를 창작했다. 李弘有에 대해서는 「樂愚堂九曲」을

31) 先澤: 先祖의 德澤. 陸游 「次何斯學秋居雜詠詩」 德澤尙未衰, 豈無五乘栗.

32) 『讀史方輿記要』 「陝西 延安府 鄜州 宜君縣」.

논하는 자리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서계가 남긴 은택은 교육을 통한 후학의 양성에서도 드러난다. 「서계선생연보」에 등재된 서계의 문하생중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몇 사람을 열거한다.

李德洙, 字 師魯, 號 怡愉堂, 韓山人. 進士, 吏參.

李時發, 字 養久, 號 碧梧(先生 三從孫), 文科, 判書, 謚號 忠翼.

洪錫箕, 字 元九, 號 晚洲, 南陽人. 文科, 參判.

韓百謙, 字 明吉, 號 久菴, 淸州人. 直長, 牧使.

尹承任, 字 重甫, 號 主一齋, 坡平人. 學行이 있다. 贈 承旨(子欽, 宋尤菴門人.)

申之益³³⁾, 字 舜舉, 號 養一堂, 鵝洲人. 孝行으로 參奉에 薦거되었으며 旌閭門이 있다.

이규익은 이런 자신의 선조 이득윤의 학덕과 혜택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 그 뜻을 계승하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으리라. 이규익이 「玉華九曲」詩를 창작한 것도 바로 이런 선조의 은택을 계승한 구체적 실례인 것이다. 후손으로서 선조의 학덕을 숭상하고 계승하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다.

다음은 제6곡이다.

六曲臺高氣像千. 옥곡이라 천경대 드높고 기세가 뛰어나,
一川花柳媚春天. 한 줄기 시내가의 꽃과 버들이 봄날에 아름답네.
道人悟得鳶魚躍³⁴⁾. 道인이 鳶飛魚躍의 이치 깨달았으니,
鸞旭昭然曜四邊. 날이 개이어 빛나듯 밝게 사방을 비추네.
千景臺

6곡은 천경대이다. 옥화대 건너편 물가 오른쪽에 있다. 바위절벽이 시내를 따라 옆으로 길게 병풍처럼 둘러있다. 꽃과 버드나무의 아름다움은 아무래도 봄이라야 제 풍취가 살아난다. 여기서도 이득윤의 학덕을 찬미하고 있다. 3, 4구에 “도인이 솔개가 날아오르고 물고기가 뛰는 이치 깨우치셨으니, 날이 개이어 더욱 빛나듯 사방을 비추네”라고 했다. 이는 道는 천지간에 어디나 있는 것이며, 만물이 저마다 제 능력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즉 천지자연의 이치를 구현했다는 의미이다. 다름 아니라 이득윤의 學道의 수준을 찬양하는 말인 것이다. 아울러 이득윤의 덕이 사방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33) 申之益은 이득윤의 장남 이홍유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冶溪八景을 설정하고 풍류를 즐겼다.

34) 『中庸』, 詩曰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하늘에 솔개날고 물에 고기가 뛰다함은 위아래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도는 천지간에 어디나 있는 것. 만물이 저마다 제 능력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함.

점을 비유한 것이며, 또한 날이 개어 햇빛이 찬란하듯이 찬연히 빛나기를 열망하고 확산 되기를 염원하는 말이다. 바위 절벽으로 조성된 천경대처럼 높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전수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하는 것이리라.

제7곡을 보자.

七曲沿流向碧潭, 칠곡이라 여울물 푸른 웅덩이로 흘러들고,
寒波滿地滴靑嵐, 찬 물결 땅 가득 물방울 푸른 아지랑이로구나.
六鰲霜骨知安在, 여섯 자라 霜骨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夢裡仙山海上三, 꿈속에 해상에 三神山을 보았네.
鰲潭

7곡은 어담이다. 지금의 龍沼이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아래 포르스름한 물이 감돈다. 그 물결은 차다. 물결 위에 수증기가 서려 오른다. 이것이 푸른 아지랑이가 되어 오른다. 포르란 물결위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사이로 포르란 물빛이 비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포르스름한 색깔은 청초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런 분위기를 어담에서 느낄 수 있다. 제3구에서 시인은 자라의 소재를 묻고 있다. 전설에 자라등 위에 신선산이 있다고 한다. 작자는 어담을 바라보며 신선의 세계를 상상해보고 있는 것이다. 그 상상력은 멀리 바다에까지 미친다. 해상 멀리에 있는 삼신산을 꿈속에 본 것이다. 삼신산은 바로 海上에 있다는 전설 속의 산이다. 신선이 사는 지방이다. 흔히 方丈·蓬萊·瀛洲라 한다³⁵⁾.

자라와 관련해 부언해들 일화가 있다. 자라는 경주이씨 '八龍派'와 무관하지 않다. 그 조상 李公麟은 아들 여덟은 낳았는데, 대개 자라라는 뜻이 담긴 한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다. 참고삼아 소개해둔다. 鯤·鯨·髓·鼈·鼉·鼈·龜·鰲이다. 金時讓(1581~1643)의 「滄溪³⁶⁾記聞」에 실려있다. 그의 아내가 鼈의 玄孫이므로 그 일을 매우 자세히 들었다고 기록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縣令 李公麟은 監司 尹仁의 아들이다. 참관 朴彭年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습쫌하던 날 밤에 꿈을 꾸니, 늙은이 8인이 앞에 와서 절하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장차 죽게 되었습니다. 공께서 만약 술에 삶아지게 된 목숨을 살려준다면 후하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공린이 놀라서 물었다. 요리하는 사람이 장차 자라 여덟 마리로 국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즉시 강물에 놓아 보내라고 명했다. 자라 한 마리가 달아나는 것을 어린 하인이 삼을 갖고 잡다가 잘못하여 목을 끊어 죽게 하였다. 그날 밤 또 꿈을 꾸니 일곱 늙은이가 와서 감사

35) 王嘉, 『拾遺記』 「高辛」.

36) 滄溪는 함경북도 鍾城의 탄 이름인데, 김시양이 광해조 임자년(1612년)에 귀양살이를 하였다.

했다. 뒤에 이공린은 아들 여덟을 낳았다.³⁷⁾

이 일화는 적선하는 집에 반드시 경사가 찾아온다는 말을 실감케 해주는 것이다. 이 공린의 묘소가 있는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자양리)에 이공린유허비를 세웠다. 비석 주변에 돌을 직육면체로 다듬은 8개의 石柱를 세우고 그 위에 자라상을 올려놓았다.

다음은 제8곡이다.

八曲平開十里亭, 팔곡이라 십리나 평평하게 펼쳐진 곳에 후운정,
 群山低戶遠逾青. 못 산이 낮은 집에서 멀수록 더욱 푸르네.
 名區落日秋蟬響, 명승지에 해질 무렵 가을매미소리 들리는데,
 引得清風最可聽. 맑은 바람 스치는 소리 듣기 아주 좋아라.
 引風亭

8곡은 인풍정이다. 인풍정 주변은 평평하게 전개된다. 그 범위가 10리쯤 된다. 수많은 산들이 야트막한 지붕 너머로 멀리 바라다 보인다. 앞이 탁 트이니 마음도 탁 트인다. 옆에 시내도 흐른다. 이곳에 해가 저물어간다. 서산 마루에 붉게 노을이 걸린 모습이 상상된다. 거기에 가을매미 소리가 어우러진다. 또한 맑은 바람소리가 가미된다. 결국 저녁 노을과 매미소리 바람소리가 조화롭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의 눈과 귀가 황홀하다. 이렇듯 인풍정은 노을 속에 스치는 바람과 매미 소리가 그 운취를 증폭시켜주는 곳이다.

다음은 제9곡이다.

九曲終臨爽塏臺, 구곡이라 마침내 시원스레 펼쳐진 봉황대,
 鳳凰何日自天來. 봉황은 어느 날에 하늘로부터 날아들까?
 謫仙³⁸⁾莫詫題詩句, 謫仙은 시 잘 짓는다 자랑 마시라,
 此地逍遙眼界恢. 이곳을 소요하면 그대의 안목이 더 넓게 트이리라.
 鳳凰臺

自萬景臺, 至鳳凰臺, 爲一舍之地, 是先公文集中玉溪山水窟者也(萬景臺로부터 鳳凰臺에 이르기까지 30리 거리가 되는 지역인데, 이곳은 서계문집 중에 좋은 산과 좋은 물이 많은 곳이란 한 곳이다.)

제9곡은 봉황대이다. 봉황대는 바위 절벽이 솟아있는 봉우리이다. 앞이 시원스레 탁 트였다. 봉황은 벽오동에 깃든다. 시인은 봉황이 날아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인은 봉

37) 金時讓 「涪溪記聞」 『大東野乘』 17, 제 72권. 1985, 557~558쪽 참고.

38) 謫仙: 唐나라 시인 李白을 지칭함.

황대에 언제 봉황이 날아들까 묻고있다. 그 다음에 “시선은 시 잘 짓는다 말하지 말라.”고 한다. 詩仙은 주지하다시피 李白을 가리킨다. 중국에도 봉황대가 여러 있다. 玉華山은 陝西省宜君縣 남쪽에 있다. 그 남쪽에 野火谷이 있고 야화곡 서쪽에 鳳凰谷이 있다. 唐太宗이 玉華宮의 건설했는데, 이로서 산의 이름이 되었다.³⁹⁾ 李白과 관련있는 鳳凰臺는 江蘇省 南京市 남쪽에 있다. 李白은 봉황대에 다음과 같이 읊었다. “봉황대위에 봉황이 날아들었는데, 봉황이 날아가니 대는 비고 강만 절로 흐르네(「登金陵鳳凰臺」. 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이렇듯 제9곡 봉황대 시는 이를 엄두하고 쓴 것이다. 작자는 앞이 탁트인 봉황대에 오면, 절로 詩意와 詩心이 靈活해진다고 믿는 것이다. 작자는 봉황대는 절로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선은 시 잘 짓는다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다. 봉황대의 아름다운 풍경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봉황대를 대상으로 읊은 한시의 존재를 또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득윤의 아들 李弘有가 지은 「鳳凰臺八詠 申平甫所居」⁴⁰⁾이다. 이는 차후에 논하기로 한다.

V. 맺 음 말

「옥화구곡시」는 주자의 「武夷棹歌」의 시형식과 詩意를 일면 수용한 바, 무이구곡에서 「武夷棹歌」를 지었던 주자의 사상과 문학적 영향이 조선후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일례적인 작품이다.

이필영은 옥화구곡 서사에서 옥화구곡이 자신의 선조인 서계 이득윤의 일이 깃든 곳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제1곡 시에서 ‘靈區’라 했는데 이는 전체적 경관에 대한 총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필영은 옥화구곡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寫實的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그 실상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합당한 고사와 비유적 방법을 써서 극대화하고 있다.

이규익은 옥화구곡 서사에서 옥화구곡을 ‘靈境’이라 단언했다. 각각의 구곡의 경관과 특징을 표현하는데 있어, 실경을 寫實的으로 표현하였다. 각각의 구곡을 읊은 시에서 이규익은 옥화구곡이 ‘영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절한 고사를 동원하거나 암시하며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옥화구곡이 ‘영경’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표현 미학적으로 성공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조인 西溪 李得胤의 학덕과 혜택을 추모 찬양하면서 이의 계승을 엄두하고 염원했다. 옥화구곡은 옥화구곡 각각의 수려한 자연경치를 그리면서 내면의 의식도 적절히 표현하였다. 먼저 자연경관을 읊고 뒤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前景後情式

39) 『讀史方輿記要』 「陝西 延安府 鄜州 宜君縣」. 수컷을 鳳이라 하고, 암컷을 凰이라 한다.

40) 李弘有, 『遜軒集』 卷之三 22장.

의 표현법을 구사했다 할 것이다. 두父子의 시적 격조를 표현미학적 관점에서 평하자면 아들인 이규익의 작품이 좀 더 품격이 높다.

이필영·이규익 부자는 옥화구곡시에서 옥화대라는 산자수명한 명승지의 자연경관과 서계 이득윤의 학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두 가지 詩的 목적을 충분히 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서계의 후손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中庸』에 “효도라는 것은 선조가 남긴 뜻을 잘 계승하고, 선조가 남긴 事蹟을 잘 기술하는 것이다.(孝者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라고 했다. 이필영은 선조들의 사적을 『慶州李氏世蹟補遺』에 기술했으며, 이를 저본으로 하여 그 내용을 발췌해서 『慶州李氏先世實錄』을 辛酉年(1921년)에 上·下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이 작업에는 그 아들인 이규익도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필영과 이규익은 선조들의 사적을 기술하고, 선조들의 문학정신 계승하여 옥화구곡시를 창작했으니, 효의 본원을 실천한 것이며, 학자 이득윤의 후손답게 후손의 도리를 완수한 것이다. 옥화구곡시는 이런 효의 실천과 학풍의 계승과 문학정신의 실천적 소산인 것이다. 이들은 바로 온고지신을 지행합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은 학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핵심원리로, 본받아 실천할 만한 덕목이다.

玉華九曲은 제1곡 만경대에서 개울을 따라 제9곡 봉황대까지 대략 30리 정도 된다. 기암 괴석으로 이루어진 바위산과 굽이도는 시내가 조화를 이루어 곳곳에 절경이 형성되어있다. 이 길을 따라 溪山風流를 즐겼던 선인들의 운치를 더듬어보면 문학 예술적 잠재력이 계발될 수 있으리라. 또한 학문과 교육에 충실했던 선인들의 학문정신과 교육정신을 음미해 보면 진정한 학문자세와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